

캠퍼스 설명회서 알짜 정보 얻고 취업문 뚫기

기업 채용 특성 분석 도움

채용상담 받고 현장면접도

■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설명회

일시·장소 : 4월12일 조선대 해오름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등 13개 기관

■ 2016년 상반기 채용설명회

| 전남대 | 면접 | |
|----------------|----------|--------|
| 3.23~24 LG유플러스 | 면접 | |
| 3.25 | 금호아시아나그룹 | 상담·설명회 |
| | 국방과학연구소 | 설명회 |
| 3.28~29 롯데그룹 | 상담·설명회 | |
| 3.30 (주)한샘 | 설명회 | |
| 4.5 한화생명 | 상담 | |
| 조선대 | 면접 | |
| 3.24 한국농어촌공사 | 채용설명회 | |

극심한 취업난에 취업준비생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취업 정보를 얻는데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있는 지방대생들의 심정은 더하다. 주요 기업들의 취업설명회에 지방대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4월 12일 조선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리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기관 합동 채용설명회'는 상반기 지역 대학 졸업생 취업의 최대 관심사다. 이날 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와 취업 준비 방향을 지역 취업준비생



캠퍼스 취업 설명회는 지역 취업준비생들에게 중요한 구직 정보 창구다. 가뜰이나 취업문이 좁아진 상황에서 기업 채용 담당자의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데다, 취업 상담도 받을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의 최대 관심사다. 조선대에서 열린 취업 설명회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 <조선대 제공>

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지방공영노동청 후원으로 열린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 한전KDN·한전KPS·한국전력거래소 등 한전 유관 기업들 뿐 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광주·전남 혁신도시 13개 이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채용 설명회 자리다.

이들 기업들은 당일 채용 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채용 요강·지역 인재 취업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서 오는 24일 조선대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롯데그룹,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생명 등은 전남대에서 채용 설명회를 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5일 채용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하고 롯데그룹은 28~29일 이틀간 진행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5일, (주)한샘은 30일 각각 채용설명회를 연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학생들의 경우 취업감의실에서 화상으로 설명회를 들을 수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취업부터 직장생활 조언까지... 동강대 '평생 지도교수제'

통계청이 파악한 지난달 20대 실업자 수는 52만1000명. 지난 1999년 통계 작성 방법 변경 이후 최고치다. 특히 지난달 늘어난 전체 실업자(11만4000명)의 70.2%가 20대 후반의 청년 실업자다.

대학들이 취업난 해소를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지원 프로그램, 취업 설명회 유치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취업하겠다는 이리뛰고 저리뛰는 제자들을 보는 교수들도 평할 리 없다.

동강대가 취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평생 지도교수제'도 '취업난에 힘들여하는 '내 새끼'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12년 간호학과 등 일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올해 22개 전 학과(3426명)로 확대했다. 교수가 학생의 학교생활 뿐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경쟁력까지 맡아 지도·조언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의도가 담겨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수법을 익히는가 하면,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졸업을 앞둔 제자들을 소개하는 '제자 세일즈'에 건취 적극적인 취업 지원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평생 지도교수제 관련 교수 회의. <동강대 제공>

학령 인구 감소 시기, 교수·학생 간 소통·유대 관계를 극대화해 학교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엿보인다. 동강대는 최근 '평생 지도교수제'에 대한 교수 회의를 거쳐 교직원 등 세부 시행안을 마련중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단신

전남도교육청·EBS, 대입설명회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여수 시민회관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입 설명회'를 연다. EBS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는 수능 대비 EBS 활용 전략, 2017 대입 전형별 지원 전략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남도교육청은 27일에는 무안군 남악신도시 내 전남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같은 설명회를 개최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 16만851명을 대상으로 '2016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위탁해 이뤄질 예정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 목적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광주 중학생 360명 영어캠프

광주학생교육원은 2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광주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16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60시간 동안 영어로 토론식 수업, 그룹활동 등에 참여한다. 학생교육원은 오는 11월까지 36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대, 인문학 강화 프로그램 눈길

3년간 87억원 투입

학문 융·복합으로 취업 모색

인문학 강좌 30% 늘리기로



전남대 인문대(1호관) 전경.

전남대가 침체 일로의 인문학 육성 전략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코어 사업)에 선정돼 학생들에 대한 인문소양 교육 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코어 사업은 대학 인문분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첫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연 6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전남대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3년간 매년 29억원을 지원받게 돼 향후 진행될 사업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전남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코어 사업 계획서'는 '융·복합 시대를 선도할 인문학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에 따라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글로벌 지역학 ▲학생이 안심하고 인문학 심화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학문심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사회과학 등 다른 학문과의 융합 프로그램으로 사회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발전 모델 제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전남대는 매년 20억원 이상을 인문학 분야 학술대회·세미나 및 연구소, 우수교수·학생 포상비 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 전체 교양 강좌 중 인문학 강좌 수를 확대한다는 구상도 세워놓았다. 올해 전체 강좌(1546개) 중 30%(469개) 수준인 인문학 강좌를 2018년에는 31% 수준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인문학 분야 우수 교수 유지 전략'으로 교수의 3% 이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수를 임명, 연구중심대학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스타 교수' 양성(가칭 '융·복합 Fellow') 구상도 눈길을 끈다.

전남대가 추진하는 3가지 모델 중 글로벌 지역학의 경우 독일언어문화·불문·일본·중문학과 등 4개 학과가 참여하고 중문·일본학과는 향후 개설교과목의 3분의 1 이상을 지역학 교과목으로 바꾼다. 독일·불문학과는 경우 학습동아리를 꾸려 활성화하는 한편, 중문·일본은 취업 동아리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기초학문심화 모델에는 국문·영문·사학·철학과 등 4개 학과가 참여하고 인문기반 융합전공 모델 참여 학과는 인문대 8개 학과 외에 경영·인류·심리·신문방송·디자인·문화전문대학원 등이 참여, 융·복합 시대 사회 수요에 부응한 '융합인문학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기초학문 심화 모델 참여 4개 학과는 인문학의 고유성을 확립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추론력 진단, 생산적 비평 능력을 갖춘 창의적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학생부에 자유학기 활동 기재한다

교육부 개정안 행정예고

사교육 부담 목소리도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 활동 이수 시간·참여태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새 지침에 따라 자유학기 중에 활동을 한 결과를 가지고 자유학기 영역과 시간, 특기사항을 적는 곳이 학생부에 별도로 마련된다. 특기사항란에는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학생의 활동 내용과 참여도, 흥미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했다. 자유학기제 활동 내역 기재와 별도로 /김지율기자 dok2000@

로 실험·실습·실기 등 교과 특성상 수업과 연계해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사·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규정으로 정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예제 등 과목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의 평소 수업태도나 실험 참여 보고서, 발표 등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수행평가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사교육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안은 2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 학기부터 시행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경매로 취득,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조정가)
- 융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투자 가치! 좋습니다

리모델링후 연 5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